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지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정홍렬 목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빌립보서 4:4-7 감사로 누리는 기쁨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429장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통일찬송가 429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찬송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실 (통일찬송가 308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김훈테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23:21-23, 역대하 35:1-19
유월절을 지키다!

견디기 힘든 세찬 바람과 뜨거운 태양의 타는듯한 갈증을 견디어 낸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묵묵히 다른 이를 위해 다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길러주신 부모께 효를 다하고, 맡겨 주신 자녀를 양육하고, 허락하신 목자와 공동체를 섬기니 때가 되어 그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주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계절 도대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되문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의 지혜가 깨우치시니 내 속의 교만이 보입니다. 이리 저리 불평을 퍼뜨리는 물결 속에 내가 헤매이는 게 보입니다. 세상에 야합한 나의 시각과 끊임 없는 욕심이 인생의 사랑과 만났던 나였기에 결코 사랑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좀더 오래 참고 절제하도록 해달라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가능케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가 이웃의 모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때까지. 몸만 성장해 버리고 지혜없이 미련한 우리 어른들도 자신을 돌아보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자신이 서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런 깨달음이 있기까지 오래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더 죽으려합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에 내 의식이 고백합니다 - "하나님아버지, 온 맘으로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 말씀에 자격없는 자가 사랑받고 있는 은혜를 깨달으니, 저는 평생 여호와를 노래하렵니다.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렵니다.
내 입술에 맺혀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한 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께서는 온맘으로 주의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푸시나이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품에 안기게 된 나, 온 맘을 다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 줄리 정 권사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주께 감사하며 주께 응답하라" (골로새서 2장 6-7절)
 "주께 감사하며 주께 응답하라" (골로새서 2장 6-7절)
 "주께 감사하며 주께 응답하라" (골로새서 2장 6-7절)

교회와사역

감사가 위대한 이유: 추수감사절

많은 이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스라엘의 3 대 절기 중의 하나인 수장절인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그보다는 신안인이 극단적인 삶에서 감격하여 드린 감사예배에서 유래한다. 즉,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을 지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복음주의를 지향했던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하여 겨울을 맞아 추위와 식량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이듬 해 봄을 맞기도 전에 절반가량이 죽었다.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백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암파노악(Wampanoag)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곡식을 파종하여 3 년만에 대풍작을 거두게 되었다.

당시에 살았던 청교도 에드워드 윈슬로우(Edward Winslow)가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이때 암파노악 부족의 왕 마사소이트(King Massasoit)가 90 여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3 일 동안 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부족은 사슴 다섯 마리를 잡아 와서 연회 음식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이 전통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모두를 초청하여 선물하고 감사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로 지내고 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이유와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 69:30-31).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 자체를 감사로 드러야하기 함을 뜻한다.

둘째, 우리는 늘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추수감사절은 전천후 감사의 집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으면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다. 사자굴의 다니엘과 감옥 속의 바울처럼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넷째, 과연 우리의 추수감사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실천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셨을까?'

환 주간의 기도

"동역하는 섬김의 교회 형제, 자매들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나 온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선교찬양 집회를 통해 우리가 선교의 비전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 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가족, 성도와 이웃에게도 감사하며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1.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찬예식을 가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2. 금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감사의 절기에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사명에 충성합니다.
3. Oikos 사역: 친교와 영적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ell 모임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4. 목요일(22)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5. 각 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 년 사역들을 점검하며 결산합니다.
6. 선교찬양집회를 위해 협력하여 준비합니다.
 - ▶선교집회 11/30(금) 오후 8 시 & 12/2(주일) 오전 11:30
 - ▶찬양집회 12/1(토) 오후 6시 & 12/2(주일) 오후 5시
 - ▶찬양 워크샵 (12/1 오전 11 시):
7. 17 주간 성경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줍니다.
8.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1/11	11/18	11/25	12/2
	김태성집사	정홍렬목사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1/16	11/23	11/30	12/7
	정종리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오정은집사
주일헌금위원	11/11	11/18	11/25	12/2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11월			12월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며, 그 곳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 요한복음 14:1-6

지금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는 목적지를 모른 채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맸다. 예수님만이 목적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고난과 핍박, 모욕과 배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마음의 평안이나 형제 사랑은 덤으로 얻으며, 결국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 이제 걸어온 방향을, 그리고 걸어갈 길을 다시 확인하자. 현재 방향이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점검하자. 예수님만을 높이고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감사로 누리는 기쁨 / 빌립보서 4:4-7

바울 시도가 신신당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한 두 가지 실천 방안은 무엇입니까?

1. 관용

2. 감사

감사로 누리는 기쁨 / 빌립보서 4:4-7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사도바울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관용은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을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마음속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분노가 아닌 관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관용은 "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어가는 마음입니다. 혹시 올 한해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용이 아니라 분노가 채우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그에게도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 때문에 염려하고 하소연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소연의 시작은 얼마나 힘든지 답답한지 알아달라는 마음인데 비해 기도의 시작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즉, 기도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늘어놓는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일단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오는 기쁨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모두의 꿈과 소망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관용과 감사입니다. 관용이 기쁨을 막는 분노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쁨의 원천이 되는 샘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샘이 있을 때에 그 샘을 통해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이 감사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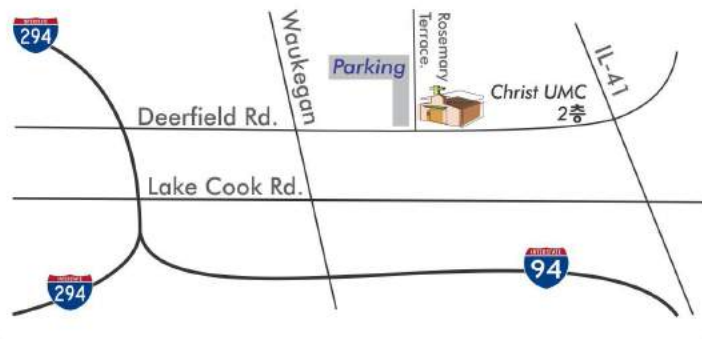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November 18, 2018

기쁨, 회복, 나눔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감사의 달
주수감사주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